



**1 홍콩, 싱가포르와 여행 정상화 합의**

홍콩과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0월 '항공 트래블 버블'(Air Travel Bubble)을 만드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트래블 버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우수 지역 간 안전막(버블)을 형성해 두 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이다. 시설격리나 자가격리가 해제되며 여행 목적이나 일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여행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홍콩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같은 중화권인 중국 본토나 마카오에서 오는 여행자들도 모두 14일 격리를 해야 한다. 홍콩 정부는 트래블 버블 조치가 "두 항공 허브 간 안전하고 혁신적인 방법의 항공 여행 재개를 도울 것"이라며 양국이 여행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최소 14일 체류한 여행자에게 트래블 버블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 홍콩관광청, 관광 분야 방역 인증제 도입**

홍콩관광청은 홍콩품질보증기관(HKQAA)과 협력해 관광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 방역 인증제는 쇼핑몰과 호텔, 레스토랑, 소매점, 버스 회사, 관광 명소, 여행사 등을 모두 포함하며, 참여 기업과 매장은 일련의 위생 전염병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평가를 통과하면 사업체와 매장에 대한 세부 정보가 HKQAA 전용 웹 사이트(<https://hkhygiene.hkqaa.org>)에 올라가며 기업과 매장은 지정된 로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홍콩관광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공중 보건과 안전이 방문객의 우선 순위가 됐다"면서 "위생과 전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제3자 검증을 통해 소비와 여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3 마카오국제여행 엑스포 개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마카오국제여행(산업)엑스포(Macao International Travel (Industry) Expo)가 11월 6~8일 마카오 코타이 엑스포에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에서 해외 여행사들과 진행하는 비즈니스 매칭 섹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만 열리며, 오프라인 전시 등 행사가 예정돼 있다. 비즈니스 매칭 섹션은 11월 6일 열리게 되며 업체당 20분씩 시간이 주어진다.



**4 이탈리아 관광청 '같이 보는 도전' 행사**

이탈리아 관광청은 SK텔레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마젠타 컴퍼니 등이 진행하는 '같이 보는 도전'(SEE TOGETHER CHALLENGE X)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선발된 참여자가 거주지 인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1시간 동안 SK텔레콤의 5G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탈리아 관광청은 돌로미티 지역의 중심지 코르티나 담페초, 물의 도시 베네치아, 동화의 마을 알베로벨로, 르네상스가 살아 숨 쉬는 도시 피렌체, 그리고 영원한 도시 로마 등을 소개했다. 이탈리아 관광청은 특히 현지 유네스코 위원회와 지역 관광청의 참여로 생생한 이탈리아의 현지 모습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21일부터 1주일간 한국, 유럽, 북미와 남미 등 전 세계에 하루 24시간 라이브로 중계됐다.



**5 뉴질랜드 관광청, '메시지 프롬 뉴질랜드' 글로벌 캠페인 공개**

뉴질랜드 관광청이 새로운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메시지 프롬 뉴질랜드'(Messages From New Zealand)를 발표했다. 관광청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평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가치를 영상에 담아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관광청은 또 10월에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 캠페인 기념 이벤트를 열고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소개로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광과 가족의 행복 등을 소재로 한 영상을 공개했다. 또 한국인 여행객들과 함께 뉴질랜드 전통 디저트인 파블로바를 만드는 이벤트도 벌였다. 권희정 뉴질랜드 관광청 한국지사장은 "여행이 가능할 때가 온다면 가장 멋진 뉴질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하루빨리 뉴질랜드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시지 프롬 뉴질랜드 캠페인은 온라인 론칭 행사를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1 인천에서 인천으로... '목적지 없는 하늘 여행'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항공사들이 국내 하늘을 비행하며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는 대형 여객기 A380을 투입해 지난 10월 24일과 25일 각각 관광 비행을 했다. 항공권 가격은 비즈니스스위트석 30만5천원, 비즈니스석 25만5천원, 이코노미석 20만5천원이다.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경우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승객 간 일정 간격을 두고 앉았다. 가용 좌석 수보다 185석 축소된 310석만 운영했다. 제주항공도 10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을 했다. 에어부산도 같은 달 30일 부산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도착하는 관광 비행을 했다.



**2 일본항공 저가항공사, 도쿄~서울 노선 운항 개시**

일본항공(JAL)의 저가항공사(LCC)인 'ZIP에어'가 서울과 도쿄를 잇는 여객편 운항을 시작했다. ZIP에어 여객기는 지난 10월 16일 나리타(成田)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영향으로 290개 좌석을 갖춘 첫 취항편을 이용한 승객은 2명에 그쳤다. 니시다 신고(西田眞吾) 사장은 "(코로나로) 상상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며 한일 노선은 태평양을 건너는 최초의 LCC로 발돋움한다는 장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3 파크로쉬 "미니 빌려타고 단풍 드라이브 체험하세요"**

강원도 정선의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는 단풍철을 맞아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의 공식 딜러 코오롱모터스와 함께 단풍 드라이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크로쉬가 있는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를 포함해 수향리~속암리~나전리로 이어지는 오대천로는 가리왕산, 두타산과 수향계곡, 속암계곡, 백석폭포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명 드라이브 코스로, 가을이면 주변 산 전체가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 미니 '클럽맨 SD' 모델은 190마력의 고성능 디젤 엔진과 8단 스포츠 '스텝트론닉' 변속기를 탑재, 주행 성능이 전 모델보다 향상됐으며,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덕분에 어두운 밤길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크로쉬는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 도로 결빙 시를 제외하고 하루 2차례 운영하며, 차량 소독과 정비를 매일 진행한다. 파크로쉬는 가을 여행을 더 알차게 누릴 수 있는 '어텀 풀' 패키지를 11월 30일까지 판매한다. 객실 1박과 조식뷔페 2인, 아쿠아 클럽 2인, 웰니스클럽 2인, F&B 바우처권, 로미지안가든 이용권 2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33만9천원부터다.



**4 에어비앤비, 강원 남부 폐광지역 여행지도 제작**

에어비앤비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을 소개하는 여행지도도 만들었다. 지도는 정선·영월·삼척·태백 지역 에어비앤비 숙소와 지역 즐길거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과 석탄 모양의 빵을 파는 카페 등 다양한 지역 맛집도 소개한다. 에어비앤비는 "지도는 현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다"며 "관광객이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도는 강원 남부 지역 숙소, 카페, 음식점 등에 비치된다. 에어비앤비 뉴스룸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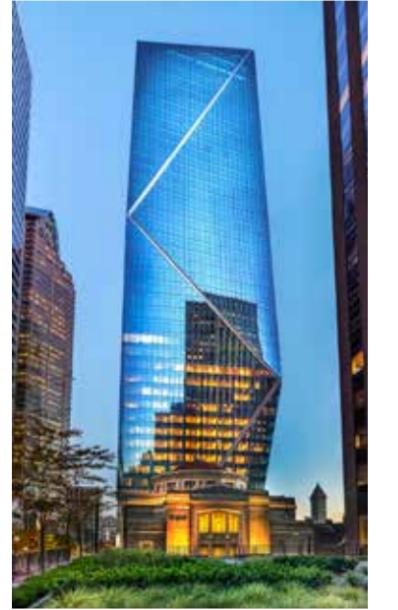


**6 세이지우드 흥천, '선셋 위드 와인 2020' 패키지 출시**

강원도 흥천에 있는 럭셔리 복합 레저시설 세이지우드 흥천은 '선셋 위드 와인 2020'(Sunset with Wine 2020)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패키지는 최근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에만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가 콘셉트로, 로얄 스위트와 프레스티지 스위트 등 총 두 가지 객실 타입으로 구성됐다. 특히 패키지 고객들에게는 일회용 카메라가 제공되며, 필름 현상을 통해 인화된 사진을 귀가 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흥천의 가을 노을과 어울리는 과실 향과 맑고 투명한 황금빛이 특징인 '라 마르카 프로세코 스파클링 와인' 1병(750ml)도 제공된다. 고객들은 더불어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실외 수영장과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노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 노천탕과 사우나, 북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7 싱가포르서 '목적지 없는 크루즈' 11월부터 운항 시작**

싱가포르에서 11월부터 다른 국가나 지역의 항구에 들리지 않고 싱가포르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목적지 없는 크루즈'(Cruises to nowhere)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항공업계가 속속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을 내놓는 것과 비슷하다. 앞서 싱가포르 관광청(STB)은 싱가포르항을 모항으로 하는 갠팅 크루즈 라인과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에 11월부터 해당 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목적지 없는 크루즈는 코로나 사태 이전 태우던 승객의 50%만을 태운 채 진행하며, 싱가포르 거주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갠팅 크루즈 라인의 월드드림호가 11월 6일부터 항해를 시작하고, 로열캐리비안의 퀸텀브더시즈는 한 달 뒤인 12월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목적지 없는 크루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크루즈에 탑승해서도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승객들과 1m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5 '롯데호텔 시애틀' 개장... '미국 동·서부 횡단 호텔 구축'**

롯데호텔은 미국 북서부 최대 도시인 시애틀에서 '롯데호텔 시애틀'이 최근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시애틀은 44층 높이 빌딩 중 1층부터 16층까지 스위트 룸 33실 등 189실 규모로 개장했다. 객실은 전면 유리창을 통해 시애틀의 바다 풍경과 도심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다. 또 최신 시설을 갖춘 12개의 연회장이 있고 스파와 피트니스 시설, 레스토랑, 바 등이 갖춰져 있다. 롯데시티호텔 타슈켄트 팰리스, 롯데호텔 양곤, 롯데호텔 사마라에 이어 롯데호텔이 해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네 번째 호텔이다. 롯데호텔 시애틀은 롯데호텔의 12번째 해외 호텔이자 롯데뉴욕 팰리스, 롯데호텔 광에 이은 미국 지역의 세 번째 호텔이다. 롯데호텔은 2010년 9월 롯데호텔 모스크바 개관을 시작으로 미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세계 7개 국가에서 12개의 해외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도 20개의 호텔·리조트가 있다.